

으나龜首는切斷된 듯하고螭首는左右로雙龍을 두고中央에方形題額이 있는通式인데彫風이 제법 불만하며題額內의字劃은磨減로알아볼 수 없다. 碑身은花崗石으로字劃에磨損을 입고處處에石衣가 덮여 있으나精讀하면碑文의大部分은判讀되리라 고 생각된다.

慈寂禪師는新羅憲康王八年三月(八八二)에出生하여眞鏡大師에게師事하였다. 王朝가 바뀐後에도高麗太祖 또한 그禪德을欽仰하는바 있어龜山禪院에 있게 하였다. 이곳에 있기에五年, 天福四年, 高麗太祖二十二年十月一日(九三九)이 곳에서示寂하니俗年五十八, 法夏四十이었다고 한다. 立碑의年次는天福六年으로서前面에碑文이 있고碑陰에는官帖과在家弟子의名이 있으며 그中에는「福聖大王」即高麗太祖도列記되었다. 官帖에는漢文과吏讀文이併記되어麗代金石文中吏讀을使用한例로서는가장 오래된 것이라 한다. 碑文은崔彥撰이고書는古書의集字이다라고 하는데古書가 무엇인가르키는 말인지不明이지만字劃이分명한行書이다. 本碑에對하여는葛城末治著朝鮮金石攷에解說이 있고朝鮮金石總覽補遺에碑文이 실려 있으나이번에現地에서實査를 하게 되었고拓本에依하여碑文判讀도 있어야하겠으나零下의氣溫으로拓本이不可能하여龜趺의發掘과 아울러再調를期하겠다.

本碑가「塔碑」로 되어 있어이附近에「凌雲之塔」이 있음직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寮舍앞에移置된浮屠의一部分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臺石의一部分, 塔身, 蓋石 등으로完形이 아니며形態는八角圓堂의形式을 따랐지만 이것이 곧凌雲塔이 될 수 있는根據는 없고 다만同寺域內에서는浮屠로서唯一한 것이었기에一旦 그렇게比定을 하여 보았을 뿐原位置의探索과 아울러不足된部材를 찾아 좀 더細密한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다.

碑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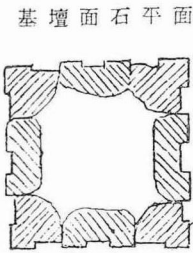
碑座 一一八cm × 四〇cm  
 碑身 高一八四cm 幅九六·五cm 厚二〇·五cm 字徑二cm  
 螭首 高五四cm 幅一一八cm 厚四五cm

第七卷 第三號 通卷六十八號

### 蔚山 東竺寺와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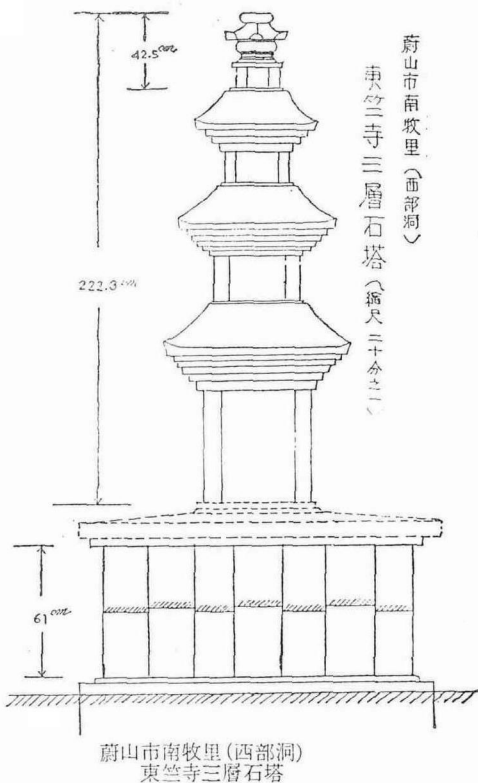
朴 日 薰

蔚州 吐含山 宗령이 南으로 뻗은 南端은蔚山 方魚津에 臨하였고西쪽은蔚山灣이 깊숙히 들어와 半島를 이루었다. 東竺寺는蔚山서 方魚津行路의 途中蔚山灣으로부터 半島를 橫斷하여 東海岸에 이르기 直前인 南牧里 三角地에서 北쪽 約二km 山峰기슭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寺僧에 依하면 前方 海岸 尾浦里(미역골 或은대추밭들)에 東竺寺가 있었을 때는이 절이 庵子였으나 丙子胡亂때 燒失된後이 庵子는 東竺寺로 되었다 한다. 「東竺寺」란 寺額은 붙어 있으나 어쩐지 아담한 小規模의 庵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주었다. 元來 東竺寺는 遺事(卷三, 皇龍寺丈六條)에 「新羅第二十四代眞興王... 至己丑年周圍墻宇至十七年(王의 三〇年 五六九年)方畢. 未成海南有一巨紡. 來泊於河曲縣絲浦今蔚州也檢看牒文云西竺阿育王聚黃鐵五萬七千斤黃金三萬分 別傳云鐵四十萬七千斤 將鑄釋迦三尊像未就載缸泛海而祝曰願到有緣國土成丈六尊容拜載模樣一佛二菩薩像縣吏具狀上聞勅使卜其縣之城東爽垺之地創東竺寺遊安其三尊輸其金鐵於京師以大建六年甲午三月寺中記云癸巳十月十七日鑄成丈六尊像一鼓而就重三萬五千斤入黃金一萬九十八分二菩薩入鐵一萬二千斤黃金一萬一百三十六分安於皇龍寺中略: 像成後東竺寺三尊佛亦移安寺中...」이라 했으니 前記 尾浦里가 當時 河曲縣絲浦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바로 여기에 西竺 阿育王이 보낸 黃鐵五萬七千斤과 黃金三萬分이 실린 배가 漂着하여 新羅皇龍寺 丈六尊像을 鑄造하기 爲하여 黃鐵과 黃金은 京師로 輸送되고 함께 실려온 一佛二菩薩像의 模樣을 安置하기 爲하여 東竺



蔚山市南牧里(西部洞)

東竺寺三層石塔(竪尺二十分之二)



蔚山市南牧里(西部洞) 東竺寺三層石塔

寺를 創建했다하니 皇龍寺와 由緒깊은 寺刹이 있으나 지금은 瓦片과 塔址가 남아 있다.

現 東竺寺(丙子胡亂前에는 東竺寺所屬의 庵子)의 本堂앞 築臺側近에 一基의 三層石塔이 있다. 基壇甲石은 없�지고 基壇石이 方形으로 둘러싼 内部로부터 塔層이 積聚되어 있다. 幅이 넓은 撐柱가 一面에 二柱씩 있어 三區로 按分되었고 塔身과 屋蓋는 幅에 比하여 高가 훨씬 높고 屋蓋裏의 斗拱은 一、二層이 五段으로 되고 三層은 三段으로 되었다. 塔層頂上에 相輪은 露盤과 覆鉢이 一石造로 되었고 寶蓋는 六角으로 仰角이 켜켜들고 있다. 圓形의 寶輪一個가 寶蓋위에 없�져 있음은 寺僧이 잘 못 없�는 것이다.

本塔은 高麗中期以後의 塔으로 짐작되고 全高約 3m에 不過한 小形石塔으로 各層의 數値는 幅에 比하여 高가 높고 簷下幅이 斗拱幅과 거의 같아 一見 六段으로 보이고 八個組로 된 基壇面石의 隅柱와 撐柱幅이 넓어 區間幅과 若干의 差가 있을 뿐이다. 또 三層屋裏斗拱이 三段으로 줄어든 것도 異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가 客年 十二月 十二日 本塔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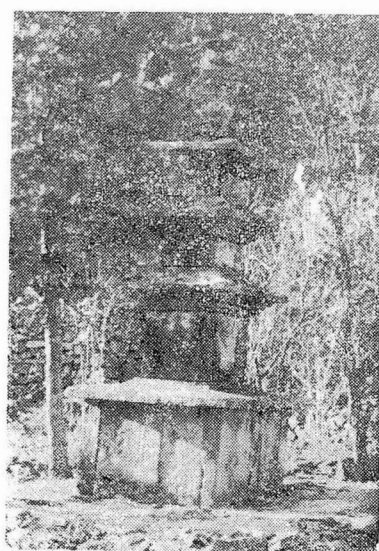
調査할 때 本來의 東竺寺址와 이 산에 磨崖石佛이 二軀있으나 後日 調査할 機會를 가지고자 한다.

### 堤川郡 月岳里 三層石塔

孟 仁 在

今年 二月 十七日 忠北 堤川郡 德山面 月岳里에서 神勒寺三層石塔一基를 調査하였다. 神勒寺는 德山面所在地로부터 약 6km 西方山間으로 進入한 月岳山東麓의 平坦한 溪邊臺地에 있고 塔은 寺門內 法堂南方路邊에 位置하고 있다. 南向한 法堂은 李朝末期의 多包뱃집이고 前庭一角에 僧房을 兼한 民家一棟이 있을 뿐인 寒寺이며 塔以外의 石造物은 볼 수 없었다.

塔은 二層基壇임이 確實하나 西南隅角의 下基壇甲石一部가 僅僅 地面에 露出되었을 뿐 그 以下 그리고 東北隅角의 上基壇面石一部는 埋沒되어 있다. 地盤의 沈下와 流砂로 덮인 埋沒의 깊이는 30cm以上일 것이며 傾斜度는 東北隅角으로 약 6度이다. 露出된 下基壇甲石에는 二段의 上基壇面石과 四枚의 隅柱와 撐柱가 刻出되어 있고 上基壇面石은 四枚이며 隅柱와 撐柱가 刻出되어 있다. 上基壇甲石은 南北二枚이며 斗拱과 角形의 屋身石과 覆鉢이 各一段씩 刻出되어 있다.



初層身石을 비롯한 三層까지의 身石과 蓋石은 各一石이며 身石에는 四隅柱를, 蓋石에는 各四段의